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감나무 저수고 재배 지원

완주군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관리환경이 열악한 감나무 재배지를 대상으로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월부터 수령 20년 이상 높이 5미터 이상인 감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작업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83농가의 감나무 2085본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

저수고 재배는 감 생산량의 증가와 병해충 방제 및 효율적 관리에 용이하며, 다음해 생육 관리와 수형 조절 및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겨울철 나무의 수액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저수고 작업을 해주면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할 수 있다.

최우식 산림복지과장은 "앞으로 농가들의 임산물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무원시험 준비반 개강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5일 지평선학당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지난 9일 선발시험을 통해 선정된 수강생 90명을 포함한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업체인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강생과 (주)에듀스과 박문각 관계자 10여명 및 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시험 준비반 추진경과,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 학사운영 안내 등 과정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제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핵심가치인 지역 청·장년층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한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량진 강사가 직접 방문 강의하는 직강 과정을 비롯하여 관리형 독서실 및 전과목 동영상 강의를 학습매니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강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강식에 참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이야말로 김제시의 미래다. 취업문제로 김제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공무원시험 준비반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모악산축제 종합프로그램 확정

문화·지리적 자원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 종합프로그램이 확정돼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모악산의 문화·지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모악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함을 간직한 전복을 대표하는 산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및 신흥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상생·평화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사백년 고찰 금산사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 기미 3.1 원평만세운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번 김제모악산축제에서는 축제 3일간 매일 다른 소재를 바탕으로 모악산이 품고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창작 뮤지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문화탐방 등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및 등반 대회를 통해 어머니 산 모악산의 포근함을 몸소 느껴볼 수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 종합프로그램이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전국 어머니 합창단을 초청하여 어머니 산에서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고, '얼피 백일장'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 특징은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진행된다는 부분이다. 김제시

19개 읍면동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여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며, 김제시 생활예술동호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솜씨를 뽐낼 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모악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문화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축제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

전시관·전시포 구성, 해외바이어 초청 등 의견 수렴

김제시(시장 박준배)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위치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는 지난 15일 오후로 세 번째를 맞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2019 국제종자박람회의 전시관·전시포 구성 및 운영

방안, 해외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계획 보고와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되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를 비롯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한국종자협회, 언론사, 산 업계·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

며, 앞으로 국제종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 협력 활성화, 국내외 기업 유치, 대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은 "2019 국제종자박람회를 계기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종자수출의 선발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종자생명산업메카, 김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도 청년사장"… 완주군, 삼례시장 사업설명회

완주군이 삼례시장 청년몰 사업설명회를 개최, 예비 창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완주군은 18일 오후 2시 삼례시장 상인교육장(2층)에서 예비 창업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삼례시장 청년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청년몰 공간구성, 청년상인 지원사항, 모집 절차 등 청년몰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삼례시장 청년몰에서 창업을 통해 꿈을 실현할 예비 청년상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삼례시장 청년몰은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삼례시장 2층 공간에 청년상인

점포 15개소와 공용 및 특화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먹거리,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명소로 완성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모집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19세이상 39세이하 예비 창업자로 모집분야는 식음료, 디저트 카페, 공예, 소품, 체험점포 등이다. 청년상인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몰 사업단(063-291-8439)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민원인 전용 무료 팩스 시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내 잡처럼 편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용 전용팩스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청 민원실에만 민원인 전용팩스가 설치되어 있어, 원거리 시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긴급을 요하는 팩스 한 장을 들고 우체국이나 문구점을 찾다가 결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쉬운 요구를 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와 관련 없는 보령, 계약, 지원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대부분이고, 요청이 없음에도 개인사를 말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송수신 확인을 위한 재방문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이 저

하되는 등 상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김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9개 읍면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신청한 10개 읍면동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발신정정 및 내신을 이용한 행정회선이 아닌 어디에나 쉽게 전송할 수 있는 KT회선을 활용하여 3월 중순까지 회선 구성을 마치고 본격 무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중배 정보통신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고려한 스마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장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 14일 재난상황실에서 박성일 군수 주재 하에 열었다.

완주군, 지역안전지수 회의 개최

완주군이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 14일 재난상황실에서 박성일 군수 주재 하에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는 완주군의 안전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교육아동복지과, 보건소를 비롯해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했다.

군은 최근 3년 동안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18년 평가에서는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도 8위의 안전도 평가를 받아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위험요소에 대해 인프라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은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